한국 8강 진출

야구월드컵…독일에 8-1 승

한국이 제37회 야구월드컵에서 독일을 꺾고 8강에 진출했다.

강문길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지난 14일(이하 한국시간) 대만 타이베이 신주앙구장에서 열린 B조 예선 마지막 경기에서 독일을 8-1로 물리쳤다.

예선을 4승3패로 마친 한국은 이날 호주에 6-7로 패한 캐나다와 승패가 같지만 승자승 원칙에 따라 조 4위로 8강 결선라운드에 올랐다.

한국은 1회 초 2사 2루에서 나지완(단국대·KIA 입단 예정)의 좌전안타로 먼저 점수를 뽑았고 3회 1사 만루에서 유한준(현대)이 2타점 적시타를 날려 점수차를 벌렸다.

한국은 3-0으로 앞서던 5회에 대타 유재웅(두산)이 우측펜스를 넘어가는 2점 홈런을 쏘아올려 사실상 승부를 갈랐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일고 출신 김대우 투수

몸값 1억2천만원…롯데 입단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가 내년 입단 신인 김대우(23·고려대 중퇴)와 계약금 1억원, 연봉 2천만원 등 총 1억2천만원에 계약했다고 15일 발표했다.

지난달 21일부터 롯데 마무리 훈련에 참가한 김대우는 광주일고와 고려대 2학년까지 마친 우완 정통파로 에이스와 4번 타자로 맹활약하며 청소년대표와 국가대표로 활약했다.

광주일고 3학년이던 2002년 팀을 청룡기 우승으로 이끈 뒤 롯데에 2차 1순위로 지명된 김대우는 몸값 협상이 결렬되자 고려대로 진학했고 상무를 거쳐 올해에는 대만프로야구에 진출하기도 했으나 뚜렷한 성적을 남기지는 못했다.

김대우는 투수보다 타격 쪽에 뛰어난 재질을 갖춘 거포로 체격 조건도 키 189㎝에 몸무게 95㎏으로 우람하다. 우투좌타인 김대우는 롯데에선 타자로 뛰게 된다.

스포츠중계

16일(금)

▲전국추계 1·2학년 대학축구 결승전(12 : 00·KBSNSPORTS)

▲대학장사 씨름(14 : 00·MBCESPN)

▲배구월드컵 4라운드 〈이탈리아 : 미국〉(15 : 00), 〈대한민국 : 케냐〉(17 : 00·KBSNSPORTS)

▲프로농구 〈오리온스 : SK〉(18 : 50·Xports), 〈모비스 : 삼성〉(18 : 50·SBS스포츠)

지난 14일 일본 오키나와 온나손 아카마구장에서 열린 한국야구대표팀과 상비군의 연습경기에서 5-5 동점으로 비긴 대표팀 선수들이 경기를 마친 뒤 타격 연습을 하며 비지땀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야구 올림픽대표

톱타자·외야수 '불꽃 경쟁'

이종욱·이대형·정근우 1번打 후보에

이병규·이택근 등 5명 외야경쟁 치열

2008년 베이징올림픽 출전권을 노리는 야구 대표팀에서 '공격 첨병'인 1번 타자와 베스트 9에 포함될 외야진 주전 경쟁이 뜨겁다.

대표팀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이 빠른 발을 이용한 기동력 야구를 구사하겠다고 선언한 가운데 효과적인 출루와 함께 기습적인 도루로 상대 내야 수비를 흔들 톱타자의 역할은 막중하다. 현재 1번 타자 후보는 외야수 이종욱(27·두산), 이대형(24·LG), 내야수 정근우(25·SK) 등 3명. 지난해 도루왕에 이어 올해도 47차례 누를 훔쳐 도루 부문 2위에 올랐던 이종욱이 주전 경쟁에서 한 발 앞서 있다.

뛰어난 주루 플레이를 바탕으로 작전 수행 능력이 뛰어난 데다 매서운 타격감까지 갖춰 소속팀 사령탑인 김경문 감독으로부터 낙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러나 이대형과 정근우의 도전도 만만치 않다.

이종욱과 같은 좌타자이면서 외야 한 자리를 노리는 이대형은 올해 53차례 누를 훔쳐 지난해 도루왕 이종욱의 추격을 뿌리고 새로운 대도(大盜) 자리에 올랐다.

타율 0.308에 68득점을 올려 공격력도 수준급이다. 정근우는 3명 중 방망이 실력에서 최고를 자랑한다. 올해 정규리그 타율 0.323으로 타격 부문 4위에 올라 이종욱(타율 0.316)을 압도했고 홈런도 9개나 쏘아 올렸다.

태극마크에 처음 도전하는 이종욱, 이대형과 달리 지난해 도하아시안게임에 뛰었던 정근우는 국제대회 경험이 장점이다. 정근우는 오키나와 첫 평가전에서도 7회 조인성 대주자로 투입돼 대표팀 선수 중 유일하게 도루를 성공시키기도 했다.

외야 주전 경쟁도 현재 진행형이다.

장성호(KIA)가 지명타자 또는 내야로 옮겨감에 따라 외야진은 15일 대표팀에 합류한 이병규(주니치 드래곤스)와 이택근(현대), 이종욱, 이대형, 민병현(두산) 등 5명으로 좁혀졌다.

이병규와 이택근은 두 자리를 예약했고 민병헌은 대수비로 나설 백업 요원이어서 이종욱과 이대형이 남은 한 자리를 놓고 막판까지 생존경쟁을 벌여야 할 전망이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한기주·류현진·민병헌 '동갑 결의'

"막내 투혼 발휘…꼭 베이징 가자"

베이징올림픽 아시아 예선에 나갈 야구 대표팀 막내들인 2년차 투수 한기주(KIA)와 류현진(한화), 외야수 민병헌(두산)은 20세 동갑내기다.

고등학교 3학년이던 2005년에 인천에서 열렸던 아시아청소년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인연이 있는 이들은 이번 대회에 임하는 각오가 남다르다.

역대 고졸 신인 최고 계약금인 10억원을 받았던 '황금팔' 한기주는 첫 태극마크 도전에 마음이 설렌다. 지난해 10승을 올리고도 투수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류현진의 기세에 눌렸던 한기주는 올해 불펜에서 맹활약하며 2승(3패) 25세이브를 거두고 대표팀 후보 30명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좌완 특급' 류현진은 처음 성인 대표로 출전했던 지난해 도하아시안게임 때 부진을 이번 대회에서 털어내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

류현진은 당시 일본과 2차전에 선발 등판했지만 2.1이닝 6안타 5실점 난조를 보여 결국 일본전 패배 빌미를 제공하며 아시아 3위로 추락하는 '도하 굴욕'을 맛봤기 때문.

올림픽 예선 일본전 선발 출격이 유력한 류현진은 "작년 아시안게임 때 일본 타자들에게 많이 맞았지만 올해는 대표팀 멤버가 좋기 때문에 분석을 철저히 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베테랑 타자 박재홍(SK)이 낙마하면서 외야 백업 요원으로 대표팀에 막차로 합류한 민병헌도 "상비군에서 열심히 하다 보니 대표팀에 뽑힌 것 같다. 대만에서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뒤 베이징에서도 메달을 따 보답하고 싶다"고 각오를 드러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男배구 세계무대 도전

18일부터 월드컵 참가

남자 배구 국가대표팀이 젊은 패기를 앞세워 세계 무대에 도전한다.

류중탁 감독이 이끄는 남자대표팀은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도쿄 등 일본 7개 도시를 돌며 열릴 2007년 국제배구연맹(FIVB) 월드컵에 참가한다.

대표팀은 지난 달 28일 태릉선수촌에 입촌한 뒤 일본 실업팀인 도레이를 비롯해 튀니지, 스페인 대표팀과 연습경기로 실전감각을 익혔고 16일 낮 일본으로 출국한다.

국제배구연맹 세계랭킹 19위인 한국은 브라질(세계 1위), 미국(세계 5위), 스페인(세계 24위) 등 대륙별 챔피언을 중심으로 12개국이 참가하는 월드컵에서 중위권을 목표로 잡고 있다.

특히 지난 9월 아시아선수권대회 때 패배를 안긴 호주(세계 23위)와 일본(세계 10위)을 상대로 각각 18~19일 1라운드에서 설욕전을 벼르고 있다.

또 이집트(세계 18위), 튀니지(세계 15위), 푸에르토리코(세계 17위) 등과 대결에서도 승전고를 울릴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 대표팀은 젊은 선수들로 세대교체를 이룬 것이 특징이다.

레프트에는 '거포' 이경수(LIG)가 허리 통증으로 빠진 가운데 대표팀 주장인 신영수(대한항공), 김요한(인하대), 박준범(한양대)이 고공스파이크를 준비하고 있다.

라이트에는 과감한 공격이 돋보이는 문성민(경기대)이 주전으로 나서고 김학민(대한항공)이 어깨 통증으로 컨디션이 좋지 않지만 뒤를 받칠 전망이다.

센터 하경민(현대캐피탈), 하현용(LIG), 신영석(경기대)은 코트 중앙에서 블로킹벽을 쌓고 '수퍼 땅콩' 여오현(삼성화재)은 리베로로 수비를 책임진다.

남자유도 월드컵단체전 출전

남자유도 대표팀이 18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리는 국제유도연맹(IJF) 2007 월드컵 단체전에 출전한다.

러시아, 프랑스, 일본, 중국, 브라질 등 세계 8개국이 출전하는 이번 대회에 한국은 60㎏급 최민호(27·KRA), 66㎏급 김주진(21), 73㎏급 왕기춘(19·이상 용인대), 81㎏급 송대남(28·남양주시청), 90㎏급 최선호(30), 100㎏급 장성호(29·이상 수원시청), 100㎏ 이상급 김수완(19·용인대)을 내보낸다.

대표팀은 23일까지 이어지는 중국 전지훈련 관계로 총 20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며 이번 대회는 경기 전에 최대 4명을 교체해 다른 선수를 출전시킬 수 있다.…

7개 체급에서 각 한 경기씩 치러 경기별 포인트에 따라 점수 합계로 승부를 가린다. 지난 해 프랑스에서 열렸던 이 대회에서 한국은 3위를 차지했었다.